

보도자료
국정감사 중간평가
2022.10.14.(86장)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전화. 02) 523-8760~7 (E) goodlaw@goodlaw.org (우) (우.08502)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212 코오롱에스텐 10층 공동사무국 법률소비자연맹

한국의 국정감사는, 그나마 6.25전쟁과 독재를 극복하면서도 **민주주의의 싹**을 지켜낸 세계10위의 선진대국이 되는 나라의 역할을 해왔으나, **이제는 서둘러** 상시 정책청문회 등 365일 상시 국정감사를 도입하지 않으면 **부패공화국**을 면할 수 없다

尹(5개월)~文정권(5개년) 교체기 국감 중간평가 “팬덤 정쟁 D학점”

-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온갖 재난에 민생국감은 실종되고, 연일 쏟아대는 북의 미사일과, 우크라이나 이상의 안보불안을 떨쳐낼 정책국감커녕, 감사 일시는 축소, 피감 기관수는 증가하며, 형식적인 ‘때우기 국감’ 일수!**
- **첫주엔 하루쉬고 하루국감, 하루쉬고 시찰(문체위-1주에 하루만 국감), 하루 국감하고 하루 쉬고(법사위/산업위/교육위), 국회법상 ‘30일 국감’ 임에도 10일 이하 국감<형식적 국감>**
- **하루10개 이상 피감기관을 동시감사 : 한마디도 묻지 않으면서 한번에 수십개 기관 불러놓고 하루종일 대기시켜 // 하루에 53개 피감기관 감사한 과방위 등 10개 상임위에서 - // 3년간(21-1,2,3.) 하루에 10개 이상 피감기관 동시감사 전수조사 - 이하 3쪽 참조(부실감사가 될 수밖에)**

- ▲ **의사진행 발언을 빙자한 상대당(의원) 비난/헐뜯기 등 국감 파행유도(?) 난무-- (법사위, 교육위, 외통위, 환노위) / 피감기관앞 추태**
- ▲ **26조 5천억대출 태양광 사업의 부실 질책 이어져(정무, 농해수, 행안, 산업위까지 전방위)**
- ▲ **서울시 예산(국민의 혈세)으로 운영하는 불요불급한 위원회가 무려 3099개/ 1년 동안 한번도 회의가 없었던 위원회도 681개(행안위 서울시 국감)**
- ▲ **월급줄 돈이 없다며 기증받은 인체조직을 헐값에 팔아(복지위 공공조직은행 국감에서) --- 한해 혈액 3만명분 폐기, 헌혈금지 약물 복용자의 오염된 3000명분의 혈액은 버섯이 유통된다고,(복지위 적십자사 국감---국민건강 방치 ---경약/분노)**
- ▲ **초과세수 61조 걸히자 세금 체납액 28조 8천억원을 ‘안 값아도 된다’ 면서 결손처리 (국민혈세 낭비---기재위 국세청 국감)**
- ▲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닌 마약 오염국 대한민국 - 국가/국민적 대책시급 (법사위, 행안위, 복지위, 농해수위, 과방위 등 여러 상임위에서 마약관련 질의/질타)**

1. [평가개요] 지난 24년 동안 전국의 국감현장을 정밀모니터·평가해온 우리‘국정감사 NGO모니터단’(공동단장 김대인 외 22인)은 2022년 제21대 국회 3차년도 국정감사를 전방위 비대면 모니터하여 국감을 중간(간이)평가합니다. <국감종합평가 및 국민민복상 시상 은 국감 종료후 정밀평가과정을 거쳐 12월 중순 발표예정임>

2. [국감성적] 우리 국감모니터단은 제21대 국회 3년차 국정감사,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국정감사, 1988년 부활된지 35년째 국정감사, 여야 정권교체 후의 여소야대 첫 국감인 **금년도(21-3) 국정감사 절반을 “D학점” <작년엔 C-학점>으로 평가**합니다.

올해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발사 속 대응 현무-C 낙탄 사고발생에 대해 여야당이 남 탓만 할 뿐 합리적인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고, 금리인상 등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도 적절한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윤석열차’ 등 지역적인 문제에 몰두하고 있고, 집권 여당은 김건희 여사 논문 의혹 등에 차단막 치기, 거대 야당은 문 대통령 감사, 이재명 수사 등에 철벽방어 등으로 **피상적 국감**을 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지난해(2021) 국정감사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의 부정비리라는 ‘대장동 게이트’ 조명과 **청와대 게시판**에서만 논란이 되는 백신 안전성과 피해 문제 등이 국정감사장에서 공개적으로 제기되는 등 국민 **“주권의식과 알권리”**를 충족하는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반면, 올해 초반 국감은 **말꼬리 잡기식 국감 질의 방해, 막말 등으로 파행하거나 고성**이 오가는 등 **지연**이 많았고, 지난해보다 피감기관수는 더 늘었음에도 현장시찰을 늘리고(8회→15회), 감사위원들은 질의시간을 안 지켜 마이크 중단으로 소리 없는 국감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국정감사 절반의 긍정/부정 평가점》

긍정적 평가점	부정적 평가점
① 거의 모든 상임위원장께서 독립적 운영과 질의내용도 예년보다 돋보였다는 평가임	① 가장 많은 피감기관(783개) 선정으로 수박 겉핥기 국정감사, 그것도 특정이슈에 집중하여 질의(대체휴일까지 쉬면서 자료준비 쉬는 날 만들고, 피감기관은 한꺼번에 몰아서 해치우기도...)
② 피감기관장의 소신발언 목소리가 커짐	② 부실자료 및 자료제출거부 여전, 교육위원회의 일방적 증인 채택 논란 등
③ 정부 감싸기는 예년에 비해 줄어듦	③ 피감기관앞 말꼬리 잡기, 막말 등만 크게 이슈화됨(국회의원의 품격 저하 심각)
④ 지난해 국감의 시정조치내역 점검하는 의원 늘어	④ 국감 전후, 365일에 해도 될 현장시찰이 도리어 늘고 있음 (전일만 15회)

《참고》 제20대 국회 첫째 국정감사는 **집권여당의 보이콧으로 ‘F’학점**을 받았고,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은 ‘기승 전 조국’국감으로 **‘D’학점**이었고, 21대 국회 1차년도는 **코로나(COVID-19) 첫 국정감사로 ‘D’학점**이었고, 2차년도는 **‘대장동’ 국감으로 ‘C-’학점**이었음.

3. [국감특색] 이번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 5년의 국정을 국민의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국정감사, 여소야대 국회로, 국정감사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이자, 포스트 코로나 외교, 안보, 경제 등 위기 속 도약이냐 후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의 국정감사임에도 **첫째, 당의 명령이나 받은 듯** 특정 안전에 대해서는 **말꼬리 잡기와 끼워들기, 막말과 파행이 횡행**하고 있다는 것, **둘째,** 한글날 대체휴일 등 연휴가 많음에도 감사준비, 자료준비를 이유로 휴감하면서 두세차례 나눠서 해야 할 것을 **하루에 몰아 국감을 하고 현장 시찰까지 늘렸다**는 것, **셋째,** 국정감사는 정부의 예산낭비, 부정비리, 국정운영의 제도적 미비 등 국정전반을 점검해서 차년도 예산심사와 입법에 반영하는 헌법상의 막중한 권한/책무임에도 **예산 낭비, 부정비리 지적보다, 정쟁 국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4. [고질적 국감병폐] 하루에 수십개 기관 불러 놓고 질의도 없이 종일 대기시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노위**의 경우 2020년 10월 12일, 16개 기관을 불러놓고 질의조차 하지 않은 피감기관이 11개나 되고, 2021년도에도 10월8일 17개 기관을 불러놓고 14개

기관장은 하루 종일 대기하다 한마디도 못하고 돌아갔다. 금년도에도 환노위는 10일중 5일이 10개 기관이 넘는 피감기관을 동시감사하고 있어 지나치다고 평가합니다. **과방위**는 3년 내내 53개 기관을 정해 놓고 감사위원(의원)이 질의할 피감기관만을 국감당일 참석케 하고, 그 마저도 질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방위**는 2020년 10월 7일에 28개 기관을 불러놓고 무려 23개 기관을 종일 대기시킨 예도 있었습니다.

또한 **더 큰 문제점**은 피감기관이 답변을 하려고 하면 가로막고 일괄질문을 하면서, 긴 질문에 짧은 답변만을 요구하고, '예, 아니오'로만 답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일문일답의 원칙**이 사라지고 있어 피감기관의 실정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충실한 국감이 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10개 이상 피감기관 국감시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비율이 30%이상인 경우>

구분	상임위원회	국감일자	참석한 피감기관	30초미만의 답변 또는 단답형 답변한 피감기관	답변을 전혀 하지 않은 피감기관	30초미만, 단답형과 질의답변 없음 비율	
2020 년도	법제사법	10월 13일	11	2	2	36.36%	
		10월 19일	17	0	9	52.94%	
		10월 20일	16	2	3	31.2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10월 07일	11	0	8	72.73%	
		10월 20일	21	0	8	38.10%	
	국방	10월 07일	28	0	23	82.14%	
	문화체육관광	10월 22일	16	0	6	37.50%	
	환경노동	10월 12일	16	1	11	75.00%	
10월 19일		11	1	3	36.36%		
계/평균	8개 상임위	17일	263	8	91	37.64%	
2021 년도	정무	10월 13일	29	0	16	55.1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10월 01일	7	0	5	71.43%	
		10월 18일	33	1	15	48.4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10월 12일	16	4	2	37.50%	
		환경노동	10월 08일	17	1	14	88.24%
			10월 13일	20	0	7	35.00%
10월 18일	12	0	5	41.67%			
계/평균	7개 상임위	22일	329	11	81	27.96%	
2022 년도 전반기	문화체육관광	10월 11일	10	0	6	60.00%	
	환경노동	10월 07일	17	1	12	76.47%	
		10월 11일	20	0	6	30.00%	
계/평균	2022년도 10개	24일	107	2	27	27.10%	

5. 김대인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공동단장은 “권력은 집중(분권-Balance)되거나 통제(감사-Check)가 없으면 반드시 부패하게 된다.(Lord Acton)”며 “국정감사는 국회가 헌법에서 부여한 정부 각부처에 대한 감시 및 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바 우리 NGO모니터단도 국회가 이러한 국정감사 본연의 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모니터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담당 : 홍 금 애 집행위원장, 윤 소 라 사무국장. goodlaw@goodlaw.org